

## 기획예산처, 미래전략 과제 발굴을 위한 민관협력체 구성

- 기획예산처 미래전략기획실, KDI·국책연구기관·학계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협력체를 구성하여 미래전략을 위한 과제발굴 추진

기획예산처는 미래전략을 위한 과제발굴을 위하여 민관협력체를 구성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 < 개요 >

- (일시/장소) '26.1.26.(월) 14시~15시30분 / 세종 KT&G 빌딩 7층 대회의실
- (참석자)
  - <기획처> 강영규 미래전략기획실장, 성장기획정책관, 통합성장정책관, 재정혁신정책관 등
  - <국책연> KDI, 산업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대외경제연구원 등
  - <학 계> 홍익대학교, 동국대학교 등

기획예산처는 현안에 대한 단기적 정책 대응 외에 중장기 구조적 과제들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해 미래전략기획실을 신설하였다. 향후 기획예산처는 분야별 민간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우리 경제·사회가 직면한 5대 구조적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발굴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 ① AI 대전환 등 산업 경쟁력 강화 ② 인구구조 변화 대응·적응 ③ NDC 2035 달성, ④ 양극화 완화, ⑤ 지역 균형 발전

민관협력체는 40개 기관(27개 연구기관, 13개 대학)의 총 80여명의 전문가로 전문 분야별 7개 분과로 구성될 예정이다. 협력체 구성은 추후 추가적 연구 필요성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조정해 나가기로 하였다.

강영규 기획예산처 미래전략기획실장은 향후 단기 현안 대응 방안 외에, 중장기 구조적 도전과제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방안 및 전략 마련이 긴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모든 국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미래전략 마련에 동 민관협력체가 매진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는 등 소통 작업도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KDI 김미루 박사는 동 작업은 과거의 관련된 연구 결과, 정책 제안의 시각에 한정되서는 안되며, 보다 창의적이고 폭넓은 시야로 과제를 발굴하고 연구 작업을 진행해야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여러 참여자가 각 과제들도 한 분야에만 한정되지 않고 여러 분야에 걸친 복합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성(cross-sectional)을 강조하였다. 이에 기획예산처-민간작업반간의 협력외에 7개 분과간에도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담당 부서	미래전략기획실 미래전략과	책임자	과 장	곽상현 (044-214-1610)
		담당자	사무관	김효진 (hjkim1104@korea.kr)

